



김창인 목사

지난날을 검토하면서 결산서를 씁시다 (고린도전서 1:5)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리로”

1. 지난날을 검토합시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결산서를 쓰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새 천년을 며칠 앞에 두고 온 세상이 들떠 있습니다. 반면 Y2K 문제로 인해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난들로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말세가 오기는 옳은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이 돌뿔 말라가고 땅이 부글부글 불에 녹아질텐데 ‘언더아 산아 날 가리워라’ 통곡하고 우는 자들이 있거나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반갑게 예수님 앞으로 달려갈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날을 검토해보고 잘한 일은 앞으로 더 잘하기를 계획하시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똑바로 사는 지혜와 악을 이기는 승리의 힘을 달라고 간구하든지, 주님만 위하여 살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 충성해야 합니다

남은 때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2절)

장로 직분을 맡았거나 찬양대원 직분을 맡았거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아무 직분도 안 맡았으니가 이 말씀과는 상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책임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되었거나 학습을 썼거나 못 썼거나 간에 지낸 죄는 용서받고 구원함을 얻은 자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덕을 세우고 안 믿는 자에게 전도하면서 우

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충성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것 좋고 인간적으로 돈을 많이 번 것도 좋습디만, 한 가지가 없으면 다 없습니다. 충성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영광을 제쳐놓고 내 욕심 내 기분 따라 살면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겁이 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 세계를 돌아볼 때 부글부글 끓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지 아니하노나”(3절)

올다 그러다의 판단은 재판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주의 재판장인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심부름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은 할 수 있습니다. 책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과 천국 가는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말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지옥”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판단권을 자기가 행사하는 무서무시한 불경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내 힘이지 약한 것만 알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합시다.

우리는 일을 해나갈 때에 설계대로 일해야 됩니다. 설계 없이 집을 짓다 보면 그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계획도 좋은 설계 같으나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 설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시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신실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 충성합시다.

3. 결 론

하나님의 허락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흘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Y2K에 떨지 말고 예수님 재림 할 때에 천송 부르도록 준비하십시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을 세우고 합시다. 그리고 무슨 일에도 내 계획대로 말고 하나님 앞에 보여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가고 복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믿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믿을 지키면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여러 불안한 소식들에 떨지 말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송 부르도록 준비하십시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을 세우고 합시다.

그리고 무슨 일에도 내 계획대로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충성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무일을 보든지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충성하는 직장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장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거짓말하지 말고 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에도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자기만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정하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교만도 낙심도 생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잘한 다음에 잘했다는 칭찬을 듣게 될 때에 그렇게 내가 잘했지 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벌써 하나님께 욕이 됩니다. 그렇게 칭찬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못난 것을 써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머리 숙여 감사하라는 한 마디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무엇인가 한 번 성도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장 여기 오시면 여러분 마음 나날 수 있었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거나 하면 됩니다. 확실히 믿고 담대한 마음 가지기 바랍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 가겠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바로 못 믿으면 바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따라가며 복을 순종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어지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도십니다.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불도십니다. 작은 믿음대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을 믿은 교만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믿는 겸손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여 성령 순종할 만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는 용서받고 현재는 담대해지고 앞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2)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때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김성곤 목사

그리스도인의 몸 (고린도전서 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사람의 몸은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의
사들과 과학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시
간을 들여 그 복잡하고 섬세한 구조를
연구해 왔지만 여전히 수없이 많은 신
비들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
떤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부끄럽게 혹
은 짧게 보고자고 대단한 노력을 기울
입니다. 몸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반
면, 이와는 정 반대로 자기의 몸을 역겨
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
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부끄럽게 여
기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몸
을 노동력을 생산하는 기계처럼 다루기
도 하며, 무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
지어 자기 몸을 여성과 더불어 즐기는
육체적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몸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
희의 것이 아니라”(고전6:19). 우리 그
리스도인 안에 누가 계신가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위도가 아닙니다. 그리
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
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또
한 은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
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인의 몸
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그 보석같은
의미를 독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인 몸

예수님께서 당대의 유대인들 몇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동안
에 일으키리라”(요2:19)고 하셨을 때 말
씀하시자고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몸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의 육체, 그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
씀하시며 계시된 것입니다(요2:21). 그
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놀랄게도 바울 사도의 몸도 하나
님의 성전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를
게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 이 특별한 구절은 바울 선생님이
한 지역교회인 고린도교회를 성령에게
가리키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
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각 개인입니다. 곧
교회와 그 구성원들 각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이점은 우리
모두가 최인양직하며, 이제는 그리

스도 안에서 각 교회와 각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한 성전이라는 말
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에 들어가셨을 때, 비둘기 파는 자들을
보시고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요2:16)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성
전을 정결케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께서는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
셨던 것입니다. 예수도 때로 우리 자
신의 몸을 시장바닥처럼 더럽힐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더럽혀진 몸, 곧 성
전을 정결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
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쌓인
모든 더러운 오물과 먼지들을 씻어낼
관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는 모든 죄의 열매를 씻어 제하시고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
시겠습니까? 성전이 무엇인지 아십니
까? 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것이 아닌 몸

성령은 거룩한 창조물입니다. 모든 인
간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
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전들입니다. 그
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리스도 안에서 거룩화하신 하나님의 전
입니다. 반면, 모든 불신자들의 몸은 죄
로 가득차 더러워진 사단의 전입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본, 우리의 몸은
거룩하든지 악하든지 우리 자신에게 속
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만들
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
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모
든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특
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애만연산에 화가 들어왔
고, 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시켰습니다. 이 사건이 인간의 본성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로 모든 인간
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본성에 의지할 수 없게 되었
습니다. 여려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다고 부가놓습니다! 우리 자아의 본
성은 너무나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그것
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 본성과 근본, 그리고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를 가진 자라 여러분을 지으셨는 바, 그

것에 악마를 채우든 하나님을 채우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
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
다. 그들은 영원을 바라보는 자들입니
다.

십자가로 구속된 몸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위대한 신비이지
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들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기 백성이 짊어진 죄의 요구를 만족시
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감람을 받
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위해서, 자
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
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마20:28). 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의 값을 만
전케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심은 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
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
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라 우리 죄를 위
하여 화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
다”(요일4:9-10). 아넬!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값은 사망이라”로 분명하게 말하
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
벼운 죄조차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의
로우신 하나님께서 때문입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는 금이나 은이나니라 “오직 흠없고 정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벧전1:19) 구속받았습니다.

성령의 전인 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적인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속한 자
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성과 근본
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
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고, 그 성령에 복음의 메시자를 믿는 모
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
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는 열매를 맺도록 받습니다. “그
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던 바 사람이 모든 사
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는 것이라. 자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온 자들로 하여금 다치는 지
회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죄
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자를
위하여 살게 하리 함이니라”(고후5:14-

15).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자신
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서 그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
야 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위한 몸

예수님의 죽음은 놀라운 선물을 우
리에게 선사하십니다. 곧 우리 그리스
도인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채우시
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20). 따라서 이 말씀은
한 중요한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곧 우
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에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지가. 혹은
낙담케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들은 오히
려 우리를 흥분케합니다. 우리의 본성
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의 능력으로
인해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더이상
슬픔이 없고 더이상 세상의 죄성에 묶이지
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본성
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세속의 땅에 서
서 풀려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흥분하
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이겨내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몸은 계시 안에서 발견
된 몸 곧 성령의 몸입니다. 이 몸으로 하
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
양할 것과 평화를 누리며 이 몸을 위애했을
하고 평화를 누리고 악마를 물리칠 수
입니다. 이 몸 곧 성령은 약해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더욱 아름다워지
고 더욱 향기를 발합니다.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몸

실로, 사람의 몸은 경이로운 창조물
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이야말로 창조의
목적들을 성취하는 영광된 몸입니다. 그
리스도인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되었습니다. 충현의 모든 형제 자
매 여러분도 이 몸을 가꾸고 우리 모두
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
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근본이 하
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
리는 예수께서 우리 몸을 구속하시기
위해 값을 지불하신 유일한 구속자가
심을 압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열
매를 경험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흥
분시키지 않습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
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지지 않습니까?
아멘. ■

위원장 신년사

위·원·장·신·년·사

“하나님 앞과 교회앞에 인사드립니다.”

노광원 장로
당회장

저는 무엇보다도 온 성도와 교회, 그리고 당회가 '화평을 이루어 가는 세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남의 짐을 들어주는 당회, 연약한 자를 세우고 품으면서 함께 가는 당회, 아무런 억울한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손해를 당할지언정 인내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섬기 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성도들과 당회원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200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정연 장로
당회장

저는 독하고 신령한 예배를 위한 주제는 항상 동일합니다. 성실하게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히 예배시간에 지각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 모든 성도를 특히 제자들이 공집회(공일예배뿐 아니라, 주요예배와 금요집회, 새벽기도회 등)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겠고, 기도를 대표하는 성도들이 잘 준비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 다. 그리고 예배 중순이나 속독 중에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예배의 경건한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회복해야 하겠습니 다. 첫 천년에는 충현의 예배가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위원회와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힘써야 하겠습니 다.

이 훈 장로
당회장

하나님께서 지난 해에도 충현교회를 구름과 강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새년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 5대목표의 첫 번째인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먼저 찬양대원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고 매 주일마다 영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온 성도들이 십자가 더 가까이 가는 금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가 가속되는 중에 특히 교회음악의 탈을 쓴 세속음악을 통해 영혼 혼란이 틈틈이 들어오는 시기를 맞이 오직 복음적인 찬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위원회의 모든 찬양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선우 장로
당회장

교회설립 초창기부터 '천국일꾼 양성'을 기조로 삼았던 우리교회는 일찍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한국교회 교육을 선도해 왔습니 다. 따라서, 초창기부터 유지되었던 그 정신과 열심을 잘 계승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뿌리를 세워 주는 교회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를 위해 대교육원위원회는 교사들의 열심을 잘 뒷받침해서 그들이 저러하는 세대들의 신앙기초를 놓는 일을 적극 도우면서 섬길 계획입니다.

최대원 장로
당회장

지난 2005년 1월부터 변경된 대학부 회의를 통해서 대학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들을 더 요인인 우우에 미치는 것이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착하다 보면 대학부의 부흥을 위한 시간과 공간의 사용면에서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 이

들이 주일에 각부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때문에 이들의 폭넓은 활동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계속해서 5부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젊은이들이 지금보다 더욱 많이, 더 적극적으로 단기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등부 찬양대를 5부예배 공식 찬양대로 임명함에 따라 2교육원위원회에 있는 밴드 및 고등부 찬양대가 영감이 넘치는 순수한 찬양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병각 장로
당회장

지금의 바야흐로 21세기의 마지막 한 해를 접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학교 100년을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교회학교의 지평을 마련하여 애정합니다. 우리 자신이 교사로서의 소명감을 높이기 위해 교사 단기 수련회에 모여 들기도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봉사하여 부족하나마 천국 일꾼 양성을 위해 몸부림을 치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흠자분하게 새날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또 알찬 일을 내다보면서 무엇인가 달라져야겠다는 각오가 새물감을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충현 교회가 교회 교육의 사명감을 통감하고 교회 예산의 10%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제 3 교육 위원회의 예산이 70% 넘게 증액되었음을 감동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관선로 지체인 모든 부서들-청년2부, 새가족부, 장년 1,2,3부, 신혼가정부, 사랑부, 애도부, 탁아부, 영아교육부, 소망부가 더욱 성장 발전할 것을 믿습니다. 각 부서에서 한 해 동안 성결 부장 정로원님과 2교역자들과, 그리고 모든 교사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박영식 장로
당회장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 앞에 삼가 인사드립니다. 17개교구 남녀 전도의 연합회 사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율적인 전도운동이 연중 지속적인 생명 운동이 되도록 강도 높은 영성 훈련을 통하여 말씀 찬양, 성령운동으로 전도 사역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전도훈련원을 개강하여 17개 교구에서 보다 많은 사명자들을 발굴하여 교육훈련에 자원 참여하게 하여 충현 전도대 본연의 사역으로 다양한 전도팀을 구성하여 연중 지속적인 전도 사역에 일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온 교회가 태신자 전도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행정 지도할 것이며 특별히 태신자 전도 운동을 통하여 사명자들로 일대일 전도자들을 발굴하여 영예를 거두고자 합니다. 농어촌 오지 전도대 파송계획을 수립하고 17개 교구와 근교, 중·경·오지 50개 미자립 교회

를 각각 분담하여 연중 지속적인 전도사역으로 미자립 교회 자립 촉진과 민족 복음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50개 미자립 교회 목회자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여 농어촌 교회 실상을 심층파악하여 미자립 교회 지원 정책에 반영할 것이며 뜨거운 사랑의 교세를 통하여 주 안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작은 전도회 회장단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상호 협력 체계를 이루어 묶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각 분야별 전도 운동을 극대화하여 전도와 관련한 특수 분야를 돕는 일에 힘쓰도록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하며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과 건설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의철 장로
당회장

이런 선교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적어서 죄송스러울 뿐이지만, 무엇보다도 은교회가 선교지향적인 열성을 가져야 하겠다는 담임목사님의 목회방침에 전적으로 맞추어 거기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보필할 생각입니다. 요즘 선교위원회의 사무실에 자주 들러서 배우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동안 선교를 참 많이 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현명한 현영혼이 참 중요하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모로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온 것 같습니다. 특히 단기선교에 대하여 아직은 이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선교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온 교회가 하나되어 7천명 선교사 파송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힘쓰겠습니다. 특히, 외선부와 관련해서는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나라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영성을 길러주는 쪽으로 열심히 사역해 보고자 합니다.

송기철 장로
당회장

우리 교회의 5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이웃 사랑'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 22:39)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봉사위원회에서 봉사와 섬김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재와 봉사는 오로지 이 하는 것을 원인이 되게 하고 보람을 보내는 곳에는 생명의 복을 도 함께 보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성도들의 생활이 회복되어서 도움을 받기보다 주는 것을 바라게 되길 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는 자선사업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을 구제 차원에서 도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윤성철 장로
당회장

교회 일에 기획이라는 이미지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성신하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교회의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는 개별 위원회나 부서가 맡아 이러한 종합적인 현황파악과 각 사역의 열매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하고 각종 사역이 절차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노력하여 교회의 중장기 계획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교회는 젊은 일꾼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과 기관들의 인제 동참할 일들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단 기간 잘 때에는 이 정도가 있으면 길을 찾기가 쉽고 동행하는 길동무와 마음을 같이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기획위원회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정표를 찾는다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년사 / 새가족 소개 / 만평

김은호 장로



2000년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구를 섬기려고 합니다. 첫째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진함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지 않고 교회 성장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 하겠습니다. 셋째 주장하는 자제로 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의 말씀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구위원회는 예전과 같이 연초에 만 75세 이상되시는 노인들을 위해 경로 심방을 실시하여 전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깨워 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헌신의 활동성을 위해 교구별로 여름과 겨울에 놓여준 전도대를 전도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할 계획이 있으며 해당교구 지역에서

도 지속적인 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해를 맞아 교구위원회는 새 가족들을 준비 하였습니다. 그 첫번째 계획은 교구 1일 수련회입니다.

2-3교구가 1주일에 한번 같이 들어가 함께 공동으로 정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며 다른 교구와의 친교도 함께 가지는 수련회입니다. 두번째 계획은 구역장, 부지역장, 권할 훈련을 전, 후반기 각각 12주로 하였는데 올해에는 전, 후반기 7주로 기간을 대폭 축소하여 진행하며 내용도 유익이 되는 주제로 진행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계획은 교구별 단합대회를 통해 교구 식구들의 단합과 교제를 증진시키겠습니다. 각 교구의 사정에 따라 봄 또는 가을에 날과 장소를 자유롭게 정하여 자체적으로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번째 계획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전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정하여 믿지 않는 가족 식구를 초대하여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으로 하나된 가족으로 나가게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계획은 교구에서 있는 애경사에 교구 일꾼들이 더욱 하나된 모습으로 섬기며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신틱 장로



2000년 새해를 맞아 헌신하는 일단 제2교육관의 완공과 충천기도원의 개보수 완료일 것입니다. 제2교육관의 현재 공사자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 있으며, 다스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 2월 초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합니다. 특히 제2교육관을 건축하는 일에는 충성스런 한 성도의 마음을 다한 헌신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경우에는 현재 봉양 지하는 수리가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는 다시 열관을 수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스터과 본당 등 모든 수리는 5월 말로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들이 성도들의 열심있는 교회생활과 영적 성장에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며 충천성도들의 많은 이용을 기대합니다.

우기전 장로



2000년 새해를 힘써 주신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교회와 바로고 정작하여 기록, 정리하고 집행하는가들 성도들을 대신하여 살펴보고 지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상, 하반기 정기 감사를 해에도 충실하게 실시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교회와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하여 현장감사 내지 서면 감사를 실시하여 교회의 모든 회계와 행정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재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면과 장기적인 관점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며 전문적인 분야와 보완과 실질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일명한 실생와 원들을 보강하여 나날 계획입니다. 일꾼들의 장로님으로 구성된 감사위원과 일꾼들 내외의 실생위원 집사님들이 그 동안 이루어 놓은 감사위원회의 정형화를 잘 이해하여 보다 친절하고 성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조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김광남 장로



어려운 한해를 잘 보내고 대망의 2천년을 맞아 축원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힘있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해 주신 것에 대해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 같습니다. 새해 예산은 작년도 예산을 근거로 하여 짜여졌으며 올해에도 천국일꾼 양성과 선교에 더욱 비중을 두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이 시기에 선교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다른 나라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껏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명 장로



2000년도는 한해를 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으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정위원 겸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 사랑을 가지고 행정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찬송가 507장(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와 367장(심자가 내게 지고) 그리고 85장("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마음이 즐거워 주영광 비올때마다 얼마나 좋으랴")를 매일 아침 부르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입술에서 가슴으로, 또 한 손과 발로 옮겨져 진정한 주님의 행령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행정위원회의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고 한 방향으로 함께가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천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평강과 기쁨이 되도록 최선의 배려와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권면과 끊임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새가족부 양육반에 정재현 형제와 마성태 형제 그리고 최경미 자매 이 세분이 12월 26일 주일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정재현 형제는 몇 달 전에 그를 새 가족부에서 만났을 때 "아내(이인숙)와의 결혼전 약속이었기에 교회에 따라 나왔으나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성경말씀에 갈등하고 안 믿자니 아내와의 약속도 있고 신앙으로 하되되지 못해 아내를 보는 것도 괴롭고..." 라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했었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새가족부에 나온지 여러달이 지났으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첫째, 믿어지지 않는다. 둘째, 성경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다. 셋째, 하지말아야 할 일에 대해 자신이 없다. 넷째, 맹종으로 보이는 믿음 생활의 회회적 관점 등등

그런 그가 이제 새 가족부에서 5개월 여 동안 성경을 읽고 질문도 많이 하더니 지난 26일 그는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를 권면했던 교사의 축하 인사에 "1999년도에 미국 풍조로 그만둬야겠다. 어찌의 믿을 것을 결단했으니 확실하게 믿었습니다"면서 새천년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마성태 형제는 온가족이 카톨릭 신자들인데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새 가족 양육반에 나온지 두번 그리고 주일 집회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기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경미 자매는 한달전에 결혼하고 시어머님 되시는 김순일 집사의 권유로 남편 안갑수 형제와 함께 새가족부에 등록하였습니다. 고운 자태만큼이나 예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했었다는 질문에 마음에 이미 준비하고 온갖 흔쾌히 영접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것만이라도 탄생된 하나님의 자녀로써 잘 살고(기도) 잘 먹고(성경읽기) 건강하게 자라도록 자신의 시간을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한숙성(새가족부 통신원)

만평



글·그림 / 정대선

세계 선교

단기 평신도선교사의 비전을 품은 젊은이들에게 하는 제안

새 천년의 첫해를 주님께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단기선교를 통하여 선교사의 삶을 체험한 젊은이들 가운데 단기 평신도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세상은 더욱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되는 충현의 젊은이들은 마치 연어처럼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나아갑니다. 어리석은 자 같으나 가장 최후로 선택을 한 충현의 젊은 선교 헌신자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1.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가급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는 이들의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할 틈이 없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통하여 부족함 없이 준비하느라 떠나는 시간까지 분주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느라 우리의 영혼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하나님, 나만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2. 삶의 스타일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은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컴퓨터는 친구도 있어서 늘 바쁘고 분주합니다. 이런 분주한 일상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갑니다. 삶의 스타일을 단순하게 정리하도록 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하십시오.

3. LMTC 과정을 이수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LMTC(평신도선교사 훈련원)과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선교의 의미 및 해외훈련을 받아 소명을 확신하도록 하십시오.

4. 국내외적인선교부(집회정소아래)에서 봉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좋은 선교지와, 타를 바 있습니다. 매 주 8개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모여 그들의 말로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드리며 교제하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와 생활습관, 언어 등을 접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팀 사역을 할 동역자를 발굴하십시오.

선교지에서 팀을 이루어 사역할 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온사와 서로의 부족한 면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기질을 가진 동역자를 발굴하여 기도 모임을 갖도록 하십시오.

6. 선교사적을 잃으십시오.

선교지의 여러 다양한 상황을 아작은 직접 경험하지 못하지만, 선교사들이 쓰신 서적을 통하여 간접으로라도 경험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각기 다른 생활 속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깊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우리가 단기선교를 마치고
통곡·후회·환희·기쁨이라
이런 감정을 다 나타내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 그중에서도 고구마 모양의 땅, 그 우간다를 향해 지난 12월 1일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길 가운데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혀지지 않은 기억의 단편이 있습니다. 우간다의 마사이라고 지칭될 정도로 호전적인 카라모종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 지역의 모로토 레인보우 학교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 위해 교실로 아이들을 들어가게 하여 한명씩과 자를 받아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받고 나간 아이들이 또 다시 주님 주위를 맴돌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와 일순간 그 자리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 나눠주지 못하고 뒤돌아서는 우리를 귀에 교실바닥에 앉아 있는 아이들의 통곡 소리가 메아리쳐 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들의 굶주림과 열병을 다시금 절감하면서 우나라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밀한 돌봄을 모르는 저 영혼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감을 매일 보면서 우리가 이 땅 끝까지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또 다른 용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가리라 그리고 전하리라! 그래서 주 오시는 날 저 통곡 소리가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리라! 아멘.

민족복음화

청년부 명동전도 결산

'명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었으면

김운경(청년부 고사)

명동에는 많은 인파로 인해 복세통을 이루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의 얼굴은 멀리서도 금방 알아볼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전도파와 비전도파를 즉 앞에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는 지체들과 아직 쪽사위하는 지체들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전도지체들은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 역시 전도지를 들고 명동 한복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하며 말을 했지만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는 술렁이듯 복번쳐 올라왔다. 전도하는 것을 멈추고 길옆 한 쪽에서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저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사람들 손에는 몇 개의 쇼핑백들이 들려져 있었고, 심지어는 카드도 물론이거니와 주머니에서 카드영수증을 들여다보면서 걸어가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걸어가거나 하는 것들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저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저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을까? 저들이 비록 웃고 있지만 저들의 영혼은 텅 비어 있을텐데, 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비록 웃고 있지만 그 영혼은 텅 비어 있을텐데...



비록 웃고 있지만
그 영혼은 텅 비어
있을텐데...

할 수 없지만 나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기도했다. 아득 명동을 붙잡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달라고, 그래서 아득 명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다시 세워주시길.

늘날 내게 너를 낳았도다." 나는 이 성경구절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나님서 저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저들을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하며 나는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을 하는 동안 아버지와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 상한 마음을 찾으며, 방황하는 자들을 찾으며, 소망이 없는 자, 무거운 짐진 자를 찾으며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닌가. 만왕의 왕,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같은 인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시고 또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이 대대에 하나님은 "그럼 그렇지"라고 하실 것이다. 나는 저들이 있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아주고 싶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 비록 우리는 우리가 뚜렷한 열매를 확인할 수 없지만 나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기도했다. 아득 명동을 붙잡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달라고, 그래서 아득 명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다시 세워주시길.



12월 23일 저녁 7시30분 청년 2부는 서울역에 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명이 넘는 청년 2부 고사와 면회원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청년 2부 회원들은 서울역 주변의 300여 노숙자들에게 게 정성껏 준비한 옷가지와 도시락, 성당 카드를 전달했다. 들로스 찬양팀을 비롯한 청년들의 찬양으로 시끄러운 전도대회는 정열한 지도목사의 설교, 구제물품과 전도지 배포의 순으로 이어졌다. 노숙자들은 찬양이 나올 때는 함께 따라부르기도 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는 진지하게 경청했다. 한 노숙자는 말씀 선포후 지도목사를 찾아와 새롭게 신앙생활에 힘써 보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다. 당일 오후에 눈발이 적지 않게 날려 행사 진행에 차질을 우려했으나 대회를 앞두고 눈이 그치고 기온이 올라가 포근함까지 느끼게 됐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전해야겠다는 회원들의 열기에 서울역의 저녁은 달구어졌다. 청년 2부 회원뿐 아니라 서울인 전도회와 충현교회 은 성도들의 성원으로 충분한 구제물품이 마련됐다. 또 부장 손준우 장로님을 비롯, 전 고사장이 행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로 청년 2부는 '구제와 전도' 하는 기관으로 강한 인상을 심게 됐다. 12월 출석회원들이 170명 수준인 100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것은 청년회 발전에 필요한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한 것이라느 평가다. 청년 2부는 2년전부터 서울역전도, 1997년부터 서울중앙명동 전도회를 꾸준히 실시해 왔다. 부활과 거절도 했지만 귀한 믿음의 열매도 적지 않았다. 이번 행사로 말미암아 청년 2부의 전도사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체들 소식

유년부
두우두우! 2000 유년부행 행해가 시작됩니다

유년부행 2000년도 행해가 시작되었어요. 선장은 황민환 장로님이시고요, 말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은 김영기 전도사님이세요. 우리를 사랑과 보살핌으로 행거주실 분은 강철형 집사님과 안근자 권사님이세요. 또한 우리 선생님들은 이 행해에 맞춰 매주 예배전 5분 시간을 경전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이 정도면 우리 유년부 순항이겠지요! 아 참 유년부 찬양대 오디션이 있었어요. 1월 8일 11시에 교육관 301호에서 있었어요. 심사는 강구구 찬양감독님이 해주신대요,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찬양대 돼요. (정지훈 통신원)

초등부
열심히 일할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이형수 장로님과 함께 일년동안 초등부에서 열심히 일할 선생님들이 많은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에서 찬양할 어린이를 모집합니다. 1월 8일 (토) 11시 교육관 307호 찬송가 235장 1절과 3절을 암송하여 오세요. (성향록 통신원)

1교구
불교에서 기독교로 극적인 변화

성탄준비와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 1주안에 2차례 장례가 있었다. 젊은 시절 조금 믿으시던 주님을 뒤로 하고 인생의 여정에서 절을 찾던 83세 한자순 성도는 10남매 중 8남매의 자녀를 앞에 두고 임종 며칠 전, 절에 가서 촛불을 켜달라고 부탁하셨다. 그 일이 지난 후 심근 경색증의 고통속에 다시 자녀들을 불러모았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되어 화복하기를 원한다는 유지를 남기셨다. 부처의 세계에서 기독교로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위로 예배대, 향불을 켜 놓았던 것도 목사님이 기독교 성절사를 말씀드리자, 유교 정신의 대학 교칙에 계시던 만상주도, 형제들과 한 뜻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장례 절차를 마치게 되었다. 그동안 부모를 위한 자녀들의 흠없음은 기도도 옛것을 수 있었다. (임통계 통신원)

9교구
새해에도 우리교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새 천년을 맞이하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세상은 온통 축제의 분위기로 들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은 지난간 시간을 돌이켜 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케 되기를 기도하며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새천년을 시작한다.
우리 9교구 모임 장소가 복직한 지하 2층으로 정해졌다. 교구장 전홍철 장로님께서 교구 어른들이 행여라도 계단을 다니실때 불편할까봐 엘리베이터 안 내 봉사자를 세우는 등 새로 시작되는 교구 모임을 위해 교구 협의회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준비하였다.
새해에도 우리 9교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 10:24) 모이기를 힘쓰는 교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옥련 통신원)

12교구
성탄절 작은 잔치

교구에서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성탄절 작은 잔치가 열렸다. 1부순서로 하나님께 영광, 땅에 평화 우리 죄위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은총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라는 말씀 후 2부 순서로 여성 중장단의 찬양에 이어 어린이들의 촛불 찬양 다녔습니다. 다나엘 어린이의 성경이야기 아담과 하와는 말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과정을 자세하게 차차근 설명을 해주어 잘하는 지 들은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마지막 순서로 자녀라 복장을 한 축하사절단이 흥원 교회를 방문한 그 나라말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 재미있게 통역해 웃음을 지어내게 했다. 특히 북쪽에서 복장을 한 집사님이 김정열을 위해 기도해 통역되어 평양에서 부흥회를 열게 해 달라는 말에 박수를 받았다. 또한 지난 주 화요일 장례를 치른 고 김정열 성도의 가족 자녀들이 참성 불교 신자라는 거지 주셨는데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 끝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해 교환하는 시간도 가지 즐거운 한 때가 되었다. (이규춘 통신원)

사랑부
자랑으로 들으신 찬양

지난 24일 교회학교 주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있었다. 사랑부에서도 세국의 찬양을 준비하였다. 첫번째 찬양곡은 율동과 함께 한 '문을 열어오'라는 찬양이었고 두번째 찬양은 '기뻐하며 경배하자'였는데 열 사람과 손을 맞잡고 찬양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감사해요'를 두순을 모으고 찬양했다.
학생들은 지휘하는 교사에게 집중하며 입장이나 퇴장시에도 정서있게 잘 따라 주었다. 여러 성도들 앞에서 조금 긴장된 그러나 어느 때보다 진진한 모습으로 학생 한사람 한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완벽한 음정이 아니라라도 매끄러운 발음에 못 미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찬양못지 않게 사랑으로 들어주시며 기뻐하셨으리라 믿는다. (민혜재 통신원)

2000년 새해의 소망

있는양대 찾아와서 양우리를 다 채우고
찾은 양대 보살펴서 영육을 살려위서
예수님 다시 오실때 반기면서 맞으리라.

정보서 지구들은 새 생명을 다시 찾고
욕심인 인류들은 주님종교에 인기위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아가리

불순종한 우리들은 저욕불에 던져우고
선하고 착한 종들 면류관을 받으주소
창공에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후 2000년 새해아침
박철구 집사

천국에 가는 사람은 14만 4000명?

김지현(고동부 편집부장)

천국에 가는 사람은 14만 4000명

저는 이 숫자만 보고 예게 겨우 이 정도밖에 없어? 천국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파책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써있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긴 내가 생각하는 수의 개념이 이걸 쓴 사람과 다를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숫자는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약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한 사람씩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2000명, 거기다가 성경속의 인물들 중 천국에 간 사람수를 더하면... 그리고 1년에 1명만 가나? 하루에 죽는 사람수도 전 세계를 합치면 엄청난 것이다. 이 사람 모두가 다 지옥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명이 간지? 혹시 다 간것 아니야? 그럼 나는... 이런 알고 어리석은 생각은 바로 '목사님 강의'를 읽은 후 사라졌습니다. '십사만 사천명. 이 숫자는 12×12×1000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서 '12'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1000'은 무한히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결국 십사만 사천명을 '셀 수 없을 정도의 큰 무리'라는 뜻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 저는 기뻐했습니다.

한편 이때까지 그 숫자의 의미를 모르고 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비밀스런 숫자들, 어기엔 뜻이 숨어있었던 겁니다. 역시 성경 말씀은 놀라운 생각이 다시 한번 하게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주한중헌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위해 새해부터 지상교회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였읍니다. 성도들 어느 누구도 매일 매일 계속되는 영적전투의 현상과 성경에서 친히 이끌어가시는 신앙학교에서 완전히 졸업할 수는 없읍니다. 매일 반복되는 신앙의 학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싸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 몸과 영혼으로 닦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이고 영혼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회 일각에서 학교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을 이 때에, 예수님을 교장 선생님이로 도신 대안학교(대鵬紙上敎育學校)를 설립하는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헌의 많은 성도들이 학교 문을 두드리면 두드림으로써 교장선생님(예수님)을 만나고 훈육주임(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중헌지상교회학교의 시설 소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무실
교무실에서는 성도들의 착한 행동은 칭찬하고 나쁜 행동은 꾸짖는 일이 벌어집니다. 쓰레기 버리는 성도 핸드폰 켜고 예배드리는 성도 등은 이 곳에서 야단을 맞고, 뚝뚝히 사람의 선함을 다하는 성도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교실
교실에서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할 교회생활 및 신앙의 기본원리를 그들이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운동장
운동장에서는 교회 및 성도들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일리런 종용 내용을, 아름다운 이야기 들을 간단하게 소개하여, 성도들이 서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온갖 이야기들을 한 곳에 모아드립니다.

양호실
양호실에서는 성도들 중 질병이나 사고로 온 성도들 중에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하는 이들을 중보기도나, 온 성도들을 이들을 소개해 드려서서 '일주일종단 중보기도'한 제목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변해 드리는 방입니다.

정답

1. 탁아부에서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 시간: 13시~14시까지
· 장소: 배들레헴홀

모임

- 1. 정기대회
 - 일시: 5월(수) 20:00
 - 장소: 당직실
- 2. 경찰청 지도의 숙의 총회
 - 일시: 9월(일) 15:00
 - 장소: 개우관기공
- 3. 선교위원회 실행위원 단합 기도회
 - 일시: 11월(화) 18:00
 - 장소: 만나홀
 - (19시부터 바다나이를거서 기도회)
- 4. 주일오후기도회
 - 일시: 오늘 15:00
 - 장소: 감리원홀
- 5. 남산교회 연합의 일례회
 - 일시: 오늘 15시
 - 장소: 감리원홀
 - 대상: 각지회 회장, 부회장
- 6. 교정청의 일례회 및 숙의 총회
 - 일시: 1월 2일(오늘) 15:00
 - 장소: 바다나홀

남녀전도회

1. 루디아 3지회 월례회
· 일시: 1월 7일(금) 11시
· 장소: 칼빈홀
2. 마리아 3지회 월례회
· 일시: 1월 7일(금) 11시
· 장소: 교육관 109호

별 세

1. 박춘희 권사
(김충선 성도 모친, 김충자 집사, 우종
천, 김형곤 집사 장모, 13교구 연
구역)/28일 별세, 29일 장례
2. 김삼조 성도
(김성현 성도, 김유자 집사, 우종
집사, 김덕실 집사 부친, 5교구
포구역)/28일 별세, 29일 장례

주소이전

1. 노광원 장로, 남정애 권사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대 리버사이드
301-202호
☎ 554-5814
2. 유재훈 집사, 최양숙 집사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29층
702호
☎ 543-6241

압력

2000년 1월 달부터 장로 새벽기도회 및 안수집사회 새벽기도회 날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 장로 새벽 기도회 요일 변경
· 일시: 1월 3일(월) 새벽기도회 후
·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새벽 기도회
요일 변경
· 일시: 1월 4일(화) 새벽기도회 후
· 장소: 교육관 109호

회계부 봉사자 명단

- 회계부 부장: 안종국, 장로: 김구형
 실업조: (I) 진화래·박종환, 김두원 오규봉, 황학규 박문태
 (II) 박창사* 송영준, 강봉기, 조종환* 김진옥
 감사: (I) 이상호* 박남수
 (II) 전재복* 김장영
 선교: (I) 마숙련* (II) 이철
 월경, 직할: 임순애
 간수: 마도환*
 주일: 김영달* 송두섭 박재인 조영철 김영련 신홍식 이재욱
 집회: 홍시우 황재인

출현교회 직원 모집

충현교회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근무할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1. 근무지 및 자취
- ① 미화적 : 50세 미만의 남자 새례교인
 - ② 경미적 : 50세 미만의 남자 새례교인
 - ③ 사무적 : 27세 미만의 남자 새례교인으로 PC 사용이 가능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2. 제출서류
- ① 자필이력서(사경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③ 자기소개
 - ④ 타 교인은 당교회 추천서 ※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3. 서류 제출처 및 문의
- 총회교회 사무국(강남구 역삼동 665-1
층 552-8200 교화 4021)

충현복지관 직원 모집

1. 근무직 및 자격 : ① 사회복지사 : 남자에 한함
2. 문의 : 충현복지관(564-4885)

새 · 가 · 족 · 을 · 화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
1	이은희	11	청년1		10	이종환	2	청년2	한재승(2)	19	이성종	7	청년1	김은경(4)
2	이일남	2	청년2	최봉순(7)	11	전금순	2	청년2	한재승(2)	20	이종성	19	청년2	나정순(15)
3	권선희	2	청년2	최봉순(7)	12	하승준	19	청년1		21	오수정	9	청년2	
4	이영강	4	베드로		13	박현근	12	청년2	한만식(12)	22	최기환	12	청년1	
5	이정선	19	대학부	주미연(194)	14	안병화	19	청년1	김정희(2)	23	김창관	11	루디아	
6	왕민정	7	청년1		15	최혜진	8	고등부		24	강성은	11	청년2	
7	전종숙	19	청년1	엄정섭(192)	16	김경희	12	청년1		25	장남현	3	청년2	
8	홍기택	19	청년1	김희수(1)	17	조정은	8	청년1						
9	조은정	19	청년1	김희수(1)	18	임재희	14	고등부						

*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장칼럼

주(主)

차 병 준 (목사, 8교구 지도)

뉴 밀레니엄시대가 언제 올 것인가
생각하였는데, 놀랍게도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뉴 밀레니엄
시대를 기념하는 축제와 계획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의 일그러진 모습은 이미 지나간 축제가 될 것이지만 전국에 유명해한, 명산에서는 해맞이 행사로 때마침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밝힌 해돋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은 이미 유명해지고 이것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비전 제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뉴질랜드시대에는 전란 각국 승선시기이 때때로 개인이 몇 가지 작중을 이 때문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중을 열거하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제정세를 전망하는 분들은 중국이 21세기 최강국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시장과 노동력 그리고 자원을 조화시킨다면 새천년에는 과거 중국 왕조들이 누렸던 그 영광을 재현한 것이며, 인구

와 국력, 영토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로마 제국이 누리던 영광과 버금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천년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는 테러로 인한 위협으로 초긴장 상태이며 비상 대기 상태라고 우려하는 기사도 우리는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을 맞이해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준비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고 가슴 벅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主)가 어디 계십니까?

이 모든 행사와 준비의 주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행사와 비전 제시가 있지만, 우리가 믿
고 있는 성경에서는 여전히 2000년대에
도 주(主)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으로 받았나이다 하더라”(요한계시록 4:11)

아메, 아메, 아메

첨 · 기 · 는 · 분 · 들

■ 원로목사 김창인

- [illegible]

■ 위임목사 김성관

- | | | | | |
|--------|-----|-------|-----|-----|
| 부목사 | 김희수 | 이종대 | 박경한 | 김동서 |
| 이홍성 | 김철수 | 이승수 | 김갑진 | 정원민 |
| 김필립 | 정형준 | 김동화 | 차병문 | 김병태 |
| 조문환 | 조철수 | 서광진 | 이승학 | 정해성 |
| 김진익 | 권현성 | | | |
| 이준경 | 박기근 | | | |
| ■ 교육목사 | 현원익 | | | |
| ■ 협동목사 | 윤영락 | 박석용 | 노부린 | |
| ■ 선교사 | 이준근 | 안학열 | 김병태 | 정은희 |
| | 이영동 | 유병환 | 수민 | 김기 |
| ■ 찬양감독 | 강임구 | ■ 감도사 | 한승일 | |
| ■ 예전도사 | | | | |
| 장영희 | 최지배 | 장영자 | 김다사 | 김정자 |
| 배옥인 | 허진성 | 문미희 | 임태주 | 신동자 |
| 윤운익 | 오보성 | 오인옥 | 김옥윤 | 한영준 |
| 김연숙 | 김정숙 | 고연식 | 계서환 | |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말예배	I 오후 7:00	본당
	II 오후 9:00	본당
	III 오후 11:30	본당
	IV 오후 10:00(가톨릭교회)	본당
	V 오후 3:00	본당
English Service	9:00 a.m.	복합기(가톨릭교회)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1:00~11:00 II 오후 7:00	본당
금요일집회	오후 7:00	본당
세례기회	오후 5:00	본당

